

농구&

8

2020년 2월 12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국보센터 박지수 작심발언 “이번 대회 문제점 보셨죠?”



박지수

여자농구대표팀은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막을 내린 2020 도쿄올림픽 최종예선에서 3위로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고 11일 귀국했다. 12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이라는 값진 결과물을 얻었지만 선수들의 표정은 밝을 수만은 없었다. 선수들 탓이 아니다. 대표팀을 지휘한 이문규 감독이 최종예선 영국전에서 12명 중 6명만 활용하는 이른바 ‘뿔뿔 농구’를 펼친 탓이다. 영국전에서 체력이 방전된 대표팀은 하루 뒤 중국과의 경기에서 힘도 써보지 못하고 60-100, 40점차로 완패했다. 이 감독의 팀 운영 방식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박지수(22·청주 KB스타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감 없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문제가 있었던 것은 다들 아실 것이다. 선수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작심한 듯 의견을 밝혔다. 이어 “스페인전, 중국전에서도 최선을 다했다. 중국전에서 크게 진 후 태극마크를 달고 국제무대에서 뛰는 게 창피하다고 느껴졌다”며 “그렇게 질 경기도, 질 선수들도 아니었다. 경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 아쉬움이 많았고, 화가 났다”고 울분을 참지 못했다. 박지수는 대표팀 지원에 대해서 개선도 요구했다. “일본, 중국은 비 시즌에 모여 대표팀 훈련을 하고, 외국에 나가 친선경기도 한다. 반면 우리는 우리끼리 운동하고, 연습경기를 한다. 아니면 국내 남자 선수들과 연습경기를 한다. 한계가 있다고 뼈저리게 느꼈다”라며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만큼 지원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함께 귀국한 이 감독은 대표 선수 후사 논란에 대해 “선수들이 프로농구 정규리그에서도 40분을 뛴다. 경기 사이 휴식일이 하루 뿐이어도 40분을 뛴다. 영국을 이기기 위해 40분 동안 죽기 살기로 했다”고 밝혀 논란의 불씨를 더 키웠다.

최용석 기자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KBL 신인선수들, 기록이 왜 이래?

평균득점 4점 이상 ‘0명’…역대급 흉작

21게임 이상 출전해야 신인상 자격
DB 김훈 유일하게 후보 자격 충족
문상욱 평균 3점득점불구 출전미달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정규리그는 이제 팀당 13~15경기만을 남겨두고 있다. 팀간 전력차가 줄어들면서 역대급 순위경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반해 신인왕 경쟁은 맥이 빠진다. KBL 특성상 신인 선수들은 비 시즌 훈련 없이 정규리그 도중 팀에 합류해 리그를 소화하고 있다. 이번 시즌은 각 팀의 정규리그 13번째 경기부터 신인 선수들의 출전이 허용됐다. 신인 선수가 제대로 뛸 수 있는 정규리그 경기수는 42경기다. 이 중 절반인 21경기 이상 출전해야 신인상 후보 자격을 얻는다.

10일 기준으로 2020 신인드래프트에서 선발된 총 22명 중 가장 많은 경기 출전과 시간을 기록 중인 선수는 원주 DB의 김훈이다. 신인드래프트 2라운드에 선발된 김훈은 21경기에 출전해 평균 11분13초를 뛰었다. 팀 내 포워드 포지션에 부상자가 발생한 덕분에 많은 기회



DB 김훈

를 얻었다. 이미 신인왕 후보 기준을 충족했다. 출전 2위는 전체 1순위로 창원 LG 유니폼을 입은 박정현이다. 19경기를 소화했다. 평균 출전 시간은 7분대에 그치고 있다. 3순위로 서울 삼성의 선택을 받은 김진영은 15경기에서 평균 8분여를 소화했고, 4순위로 고양 오리온의 지명을 받은 전성환은 17경기에서 평균 9분28초간 활약했다. 김훈, 박정현, 김진영, 전성환은 큰 이변이 없으면 신인



상 후보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들 이외에 김경원(안양 KGC), 이운수(DB), 김세창(울산 현대모비스)도 잔여 경기에서 꾸준하게 나서면 21경기 이상 출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김경원은 무릎 내측 인대 부상으로 재활중이라 신인왕 경쟁에서 조기 이탈했다. 8경기씩을 뛴 이운수와 김세창은 잔여 일정에서 1~2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면 21경기를 채우지 못한다. 신인상 후보 자체가 될

‘1점차 승부 2승4패’ 삼성, 뒷심이 필요해

6위 전자랜드에 2.5경기차 추격전
이상민 감독 “리바운드 잘하면 돼”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정규리그는 5라운드 중반에 돌입하면서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올 시즌은 각 팀 간 전력차가 크지 않아 접전 승부가 유독 많다. 각 순위권 경쟁 팀마다 1승이 귀한 상황이라 팽팽한 승부에서의 한 골이 매우 중요하다.

서울 삼성은 올 시즌 접전에서 한 골이 가장 아쉬웠던 팀이다. 11일까지 41경기(18승23패) 중 6차례나 1점차 승부를 펼쳤다. 10개 구단 중 1점차 승부를 가장 많이 한 팀이다. 이중 승리는 2번뿐이다. 4차례나 1점차 패배를 당했다. 최근에는 9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벌어진 서울 SK와의 ‘S더비’에서 92-93으로 석패했다. 경기 종료 4초전 상대 안영준에게 끝밀 득점을 허용하면서 통탄의 패배를 당했다. 플레이오프 진입을 위해 간간힘을 쓰고 있는 삼성에게 매우 뼈아픈 패배였다.

삼성 이상민 감독(48)은 리바운드에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삼성은 시즌 개막 이전부



이상민

터 리바운드가 약점으로 꼽혔다. 이 감독은 “리바운드가 너무 아쉽다. 수비를 잘해놓고도 상대에게 공격리바운드를 뺏겨서 진 경기가 꽤 된다. 4라운드에 제임스 톰슨을 영입한 것도 이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삼성은 상대 팀에게 매경기 평균 36.8개의 리바운드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안양 KGC(평균 38.6개 허용)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숫자다. 9일 S더비 한 점차 패배 역시 공격리바운드 허용에서 이어진 실점이었다.

삼성은 플레이오프 진출 마지노선인 6위 인천 전자랜드(20승20패)에 2.5경기차로 뒤져 있다. 아직 13경기가 남아있지만, 상대 팀들의 집중력이 높아지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니다.

접전 대결에 약해서는 결코 좋은 성적을 내기 어렵다. 접전에 약한 삼성이 이를 극복하고 목표인 플레이오프 진출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2020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11일 부산탁구체육관에서 하나은행과 타이틀스폰서 협약을 체결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왼쪽)과 이호성 하나은행 부행장이 협약서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 월간탁구 안성호 기자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하나은행 타이틀 스폰서 협약

2020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11일 부산 영도구에 위치한 부산탁구체육관에서 하나은행과 타이틀스폰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에 따라 3월 22일부터 29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벌어지는 이번 대회는 ‘하나은행 2020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공식 명칭이 됐다.

이번 협약식에는 대회 공동 위원장인 오거돈 부산시장, 이호성 하나은행 영남영업 그룹부행장을 비롯해 하나은행, 조직위원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시즌 기록으로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신인 선수 중 경기 평균 4.0점 이상을 넣고 있는 선수가 단 한 명도 없다. 신인 선수 평균 득점 1위는 부산 KT 문상욱이다. 평균 3.0점을 기록했다. 하지만 문상욱은 6경기 출전에 그치고 있어 잔여 경기에 모두 출전해도 21경기 출전 미달로 후보조차 될 수 없다. 리바운드와 어시스트 등 주요 부문에서 의미 있는 기록을 선보인 선수를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신인 선수들의 활약상이 미비하다.

최근 5시즌으로 보면 2014~2015시즌 이승현(고양 오리온)이 평균 10.9점·5.1리바운드·2.0어시스트로 신인상을 받았다. 2015~2016시즌에는 정성우(창원 LG)가 평균 4.2점·1.7리바운드·2.8어시스트로 영광을 누렸다. 2017~2018시즌 인천 전자랜드 강상재(8.2점·4.7리바운드·1.0어시스트), 2017~2018시즌 서울 SK 안영준(7.1점·3.7리바운드·0.8어시스트), 2018~2019시즌 KGC 변준영(8.3점·2.1리바운드·2.2어시스트)이 시상대에 올랐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sports2i

스포츠투아이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 결과

프로배구

〈10일〉

●도드람 2019-2020 V리그 남자부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득점	실점	연속
1	우리카드	27	20	7	56	2425	2241	1패
2	대한항공	28	20	8	56	2534	2362	6승
3	현대캐피탈	27	16	11	49	2442	2346	1승
4	OK저축은행	27	13	14	40	2281	2350	1승
5	삼성화재	26	10	16	32	2155	2255	6패
6	KB손해보험	27	9	18	28	2459	2542	1패
7	한국전력	26	6	20	21	2135	2335	5패

●부문별 중간순위

총 득점				세트당 블로킹			
순위	선수	팀	득점	순위	선수	팀	블로킹
①	비에나	대한항공	721	①	신영서	현대캐피탈	0.91
②	가빈	한국전력	563	②	김규민	대한항공	0.73
③	멜리페	우리카드	542	③	최민호	현대캐피탈	0.69
④	송명근	OK저축은행	408	④	김홍정	KB손해보험	0.65
⑤	다우디	현대캐피탈	399	⑤	박상하	삼성화재	0.63

●도드람 2019-2020 V리그 여자부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득점	실점	연속
1	현대건설	21	17	4	45	1884	1792	4승
2	GS칼텍스	22	14	8	43	1957	1832	1패
3	충국생명	22	10	12	37	2025	1900	6패
4	인삼공사	22	10	12	28	2097	2156	3승
5	도로공사	21	7	14	21	1826	1933	3패
6	IBK기업은행	22	7	15	21	1831	2007	1승

●부문별 중간순위							
총 득점				세트당 볼로잉			
순위	선수	팀	득점	순위	선수	팀	볼로잉
①	디루프	인삼공사	722	①	양호진	현대건설	0.88
②	라조	GS칼텍스	550	②	김세영	흥국생명	0.73
③	에이이	IBK기업은행	483	③	한수지	GS칼텍스	0.66
④	박정아	도로공사	401	④	라조	GS칼텍스	0.65
⑤	이재영	흥국생명	364	⑤	김수지	IBK기업은행	0.61

남자프로농구

(10월)

●2019-2020 현대모비스 KBL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연속
1	DB	41	26	15	0.634	0	1승
2	SK	40	25	15	0.625	0.5	2승
3	인삼공사	40	24	16	0.600	1.5	3패
4	KCC	40	22	18	0.550	3.5	1패
5	KT	41	21	20	0.512	5	3승
6	전자랜드	40	20	20	0.500	5.5	3패
7	삼성	41	18	23	0.439	8	1패
8	모비스	39	17	22	0.436	8	1승
9	LG	40	16	24	0.400	9.5	1승
10	오리온	40	12	28	0.300	13.5	4패

NHL										(11월)				
●팀순위					동부 콘퍼런스									
순위	애들란틱	승	패	OT P	순위	메트로폴리탄	승	패	OT P					
1	보스턴	34	11	12	80	1	워싱턴	36	15	5	77			
2	탬파베이	36	15	5	77	2	피츠버그	34	15	5	73			
3	토론토	29	19	8	66	3	뉴욕	32	16	5	70			
4	플로리다	29	20	6	64	4	콜럼버스	30	17	10	70			
5	몬트리올	27	24	7	61	5	필라델피아	31	18	7	69			
6	버펄로	24	24	8	56	6	캐롤라이나	32	20	3	67			
7	오타와	18	26	11	47	7	뉴욕R	27	23	4	58			
8	디트로이트	14	39	4	32	8	뉴저지	20	24	10	58			
서부 콘퍼런스														
순위	센트럴	승	패	OT P	순위	퍼시픽	승	패	OT P					
1	ST 루이스	32	15	9	73	1	밴쿠버	31	21	5	67			
2	콜로라도	32	16	6	70	2	에드먼턴	29	20	6	64			
3	달라스	31	19	5	67	3	베가스	28	21	8	64			
4	워니펙	29	23	5	63	4	캘거리	29	22	6	64			
5	내슈빌	26	22	7	59	5	애리조나	28	23	7	63			
6	미네소타	26	23	6	58	6	애니하임	23	26	7	53			
7	시카고	25	22	8	58	7	세인트루이스	24	28	4	52			
●경기결과														
애리조나 3-2 몬트리올				필라델피아 4-1 플로리다										
뉴욕 5-3 워싱턴				탬파베이 2-1 콜럼버스(연장)										
밴쿠버 6-2 내슈빌				캘거리 6-2 세인트루이스										

NBA									
●경기결과									
유타 123-119 델라스			덴버 127-120 샌안토니오			샬럿 87-76 디트로이트			
마이애미 113-101 골든스테이트			브루클린 106-105 인디애나			LAL 125-100 피닉스			
밀워키 123-111 세크라멘토			올랜도 135-126 애틀랜타			토론토 137-126 미네소타			

경기 예고

남자프로농구

12월

2019-2020 현대모비스 KBL

오리온

고양체육관

SK

오후 7시, SPOTV2

프로배구

12월

2019-2020 V리그 여자부

IBK기업은행

화성종합실내

인삼공사

오후 7시, KBSN스포츠

2019-2020 V리그 남자부

한국전력

수원체육관

우리카드

오후 7시, SBS스포츠

프로배구

12월

2020 AFC 챔피언스리그(전주W, 오후 7시)

수원

대전

1차전=전북현대-요코하마 마리노스